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 및 마이스터 인·적성 소양 평가 안내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2024. 10. 7. 기준]

I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및 입학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등록 및 접수	10. 14.(월) ~ 10. 18.(금) * 고입전형포털: 12시 * 나이스(NEIS): 1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 포털 (http://hischoolgbe.kr)
서류 제출	10. 14.(월) ~ 10. 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방문 제출 가능) (단,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할 경우 10.18.(금)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23.(수) 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 포털 정원의 1.3배수 선발
2차 전형 (마이스터 인·적성 소양평가, 면접, 신체검사)	10. 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고사실
최종 합격자 발표	10. 30.(수) 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 포털, 나이스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에서 확인

※ 기타 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입학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마이스터 인·적성소양 평가 안내

- 배점 : 일반전형 70점 만점, 특별전형 100점 만점
- 인성 평가(검사)**는 160문항 선택형, 진위형으로 검사시간은 25분 내외입니다. **성실성, 대인관계성, 정서 안정성** 등을 검사합니다.
- 적성소양 평가(검사)**는 48문항 4지 선다형으로 검사시간은 45분 내외입니다. 전자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영마이스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적성(**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력, 공간지각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인·적성소양 평가 문제는 동일하며, 배점만 다르게 적용합니다.

▶ **의사소통능력**[문서를 읽고 이해하거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전거를 탈 때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이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허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유지할 경우 엉덩이·허벅지 등에 미세 손상이 반복돼 결국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전거를 타려면 우선 안장과 손잡이 높이를 자신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안장이 너무 높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안장이 너무 낮아도 무릎에 좋지 않다. 이때 안장 높이는 발을 페달의 최저점에 놓았을 때 무릎 뒤쪽이 155~160도로 펴진 상태가 좋다. 핸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30도가량 구부리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또 라이딩 시에는 허리를 최대 45도까지만 구부리도록 의식하고 자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는 경우 안장 부위가 회음부를 장시간 지속 자극해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전립선에 충격이 가해지면 전립선통과 빈뇨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단시간 타는 것이 좋다. 40분에서 50분 정도 타고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을 권장한다. 30분마다 한 번씩 라이딩 도중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도 좋고, 충분한 스트레칭 이후에 자전거를 타야 한다. 라이딩 시에는 처음부터 빠르게 페달을 밟기보다는 15~20분 정도 워밍업 시간을 두고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 라이딩 후에는 꼭 코어 운동과 마사지, 스트레칭을 통해 놀란 근육을 진정시켜 줘야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허리와 엉덩이 등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

1. 밑글에서 알 수 있는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안장 높이는 발을 페달의 최저점에 놓았을 때 무릎 뒤쪽이 155~160도로 펴진 상태로 조절한다.
- ② 라이딩 전과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라이딩 시 처음 15~20분 정도 워밍업 시간을 두고 서서히 속도를 높여나간다.
- ③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면 회음부가 지속적으로 자극되어 전립선통과 빈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30분마다 한 번씩 휴식을 해주는 것이 좋다.
- ④ 핸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30도가량 구부리는 정도의 높이로 조절하고, 라이딩 시에는 허리를 45도 이내로 구부리도록 의식하고 주행한다.

정답: ③

해설

: 해당 지문에서는 ‘~따라서 자전거는 단시간 타는 것이 좋다. 40분에서 50분 정도 타고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충분히 휴식을’이라고 기술하여, ③번 30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선지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이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허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유지할 경우 엉덩이·허벅지 등에 미세 손상이 반복돼 결국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전거를 타려면 우선 안장과 손잡이 높이를 자신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안장이 너무 높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안장이 너무 낮아도 무릎에 좋지 않다. 이때 ①번: 안장 높이는 발을 페달의 최저점에 놓았을 때 무릎 뒤쪽이 155~160도로 펴진 상태가 좋다. ④번: 핸들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30도가량 구부리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또 라이딩 시에는 허리를 최대 45도까지만 구부리도록 의식하고 자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오래 타게 되는 경우 안장 부위가 회음부를 장시간 지속 자극해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전립선에 충격이 가해지면 전립선통과 빈뇨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③번: 따라서 자전거는 단시간 타는 것이 좋다. 40분에서 50분 정도 타고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을 권장한다. 30분마다 한 번씩 라이딩 도중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도 좋고, ②번: 충분한 스트레칭 이후에 자전거를 타야 한다. 라이딩 시에는 처음부터 빠르게 페달을 밟기보다는 15~20분 정도 워밍업 시간을 두고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 라이딩 후에는 꼭 코어 운동과 마사지, 스트레칭을 통해 놀란 근육을 진정시켜 줘야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허리와 엉덩이 등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

2. 윗글의 밑줄 친 ㉠에서 쓰인 ‘가다’와 쓰임새가 같은 것은?

- ① 조그만 조각품에는 손이 많이 간다.
 ②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는 몸에 축이 간다.
 ③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④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간다.

정답: ②

해설

· 해당 지문에 등장한 ㉠ ‘가다’는 안장이 너무 높을 시 척추에 ‘건강에 해가 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가 된다.

- ①번: ‘~간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든다는 것을 말한다.
②번: ‘~간다’는 건강에 해가 됨을 뜻한다.
③번: ‘~간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음을 의미한다.
④번: ‘~간다’는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 ① 문제를 다 **마쳐서** 백점을 받았다.
- ② 그것은 나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야.
- ③ 서류는 **있다가** 줄테니 먼저 전화부터 해줘요.
- ④ 평생을 연구에 몰 **바친** 사람이니 참 대단하지.

정답: ④

해설

∴ ④번의 밑줄 친 ‘바친’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의미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된다.

- ①번: ‘마쳐서’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난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표기로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의 ‘맞혀서’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②번: ‘붙이는’은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표기로는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는 의미의 ‘부치는’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③번: 조금 지난 뒤라는 의미의 ‘이따가’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④번: ‘바친’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의미이다.

▶ **수리능력** [수의 계산 능력 및 산술적 이론 정립 능력]

1. A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을 총 3회 보았는데, 받은 점수는 각각 달랐다. 2회는 1회보다 10점 높았고, 3회는 2회보다 4점 적었으며 2회와 3회를 합한 점수는 162점이었다. A가 3회에서 받은 점수는?

- [illegible]

정답: ②

해설

- 3회 점수를 x 라고 표현한다.
- 3회는 2회보다 4점 적었으므로, 2회 점수 = $x+4$
- 2회 점수+3회 점수 = $(x+4)+x = 2x+4 = 162$
- > $2x = 158$
- > $x = 79$ 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 **문제해결력**[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 ○○마이스터고 학생 여섯 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줄을 서 있다. A학생보다 뒤에서 있는 학생은 몇 명인가?

- B학생 뒤에는 C학생만 서 있다.
- A학생은 D학생보다 앞에 서 있지만 E학생보다는 뒤에 서 있다.
- F학생은 E학생과 A학생 사이에 있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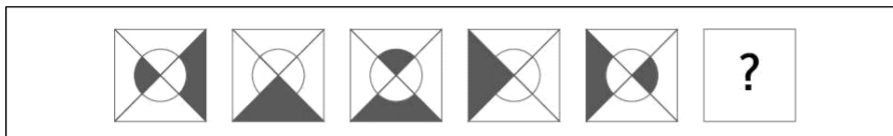
정답: ③

해설

- 첫번째 조건: (앞) B C (뒤)
-> B학생 뒤에는 C학생만 서 있다고 했으므로 6명 중 B학생이 5번째, C학생이 6번째로 서 있다.
- 두번째 조건: (앞) E A D (뒤)
- 세번째 조건: (앞) E F A (뒤)
- 두번째 조건과 세번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앞) E F A D (뒤) 이므로,
6명의 학생 순서는 (앞) E F A D B C (뒤)가 된다.
-> A학생의 뒤에 서 있는 학생은 D, B, C학생, 3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 **공간지각력**[공간 속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1. 다음 도형 변화의 규칙을 알아보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찾는다면?



- ①  ②  ③  ④ 

정답: ②

해설

- 첫번째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세번째 도형, 세번째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다섯번째 도형
 - 두번째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네번째 도형
- > 여섯번째 도형은 네번째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배점 : 일반전형 60점 만점, 특별전형 90점 만점]

전형구분	면접 방법	평정척도	평가 내용
일반전형 · 특별전형	면접관 4명, 수험생 5명씩 개별 구술 심층면접	4척도 (A, B,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력 및 의사표현력 ■ 마이스터고 학생으로서 미래 진로 설계 계획의 적절성 ■ 자기이해 능력 및 지원분야 이해 ■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 ■ 품성, 인성 및 태도 ■ 준법성, 대인관계 능력